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2개교의 진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습 연계로 최대한의 학습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잠실4동은 2008년 재건축된 잠실파크리오 아파트 6,864세대 22,925명과 2019년 8월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진주아파트 1,507세대 7,518명 및 미성·크로바 아파트 1,350세대 4,420명 등을 포함 총 9,721세대 34,868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향후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이 완공되는 2023년에는 2,000여세대 6,000여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어 학생수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잠실4동에는 현재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초등학교(잠실초, 잠현초) 1개의 고등학교(잠실고)가 있지만 중학교가 없습니다.

잠실 4동의 초등학생 수는 2,078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평균의 37%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매년 350여명의 졸업생이 인근 잠실6동의 잠실중학교로 배정되어 진학하지만 잠실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서울 평균의 30%를 초과하는 과밀학교입니다.

중학교 부재로 인하여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잠실4동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실4동 35,000명의 안타까운 처지와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본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